한국학연구 제62집 | 141~162쪽 | 2021.8.

번역과 선교 : H.G.언더우드의 중문 기독교문헌 번역(1886-1896)

이고은*

〈차 례〉

1. 서론
2. H. G. 언더우드의 번역서 목록과 번역 동기
3. 언더우드의 중문 전도문서 입수 경위
4. 언더우드와 번역자들, 그리고 번역서의 독자들
5. 언더우드의 번역서와 관련된 몇 가지 문제
6. 결론

[국문초록]

본 연구는 한국 개신교 전래 초기에 내한하여 전도와 교육, 의료, 출판 등 다방면에서 중요한 행적을 남긴 미국 개신교 선교사 호러스 그랜트 언더우드(Horace G. Underwood, 1859~1916)가 중문 기독교 문헌을 한글로 번역했던 정황을 조명한다. 언더우드가 1886년 무렵부터 중문 기독교 문헌을 다수 번역하여 조선성교서회와 삼문활판소를 통해, 또는 개인적으로 발행했던 1890년대 중반까지로 연구의 범위를 설정한다. 먼저 언더우드가 번역한 것으로 알려진 중문 기독교 문헌을 소개하고, 그가 19세기 중국의 개항장 상하이를 중심으로 발행된 수많은 기독교 문헌 중 어떤 것을 가져다 번역했는지 선택상의 특징을 이야기한 뒤, 그가 번역에 힘쓴 동기와 중문 기독교 문헌을 입수하게 된 정황, 언더우드 주변의 번역자와 독자에 대해 논한다. 마지막으로 연구상의 난제로서 서적의 발행연도·발행처 표기가 불분명한 점, 영문·중문 제목의 일관성 결여, 그로 인해 같은 책이 다른 선교사에 의해 중복 번역되었을 가능성 등을 제시한다.

[주제어] 언더우드, 번역과 선교, 중문 기독교 문헌, 전도문서, 교리서, 번역 조사

* 한국학중앙연구원 / 연구원

1. 서론

19세기 중반 중국의 개항장 상하이를 중심으로 선교사들이 활발히 발행했던 중문 기독교 문헌과 근대 지식서는 동아시아 지식인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쳤다. 한국 개신교 전래 초기 유럽과 미국 출신 선교사들도 바닷길과 해외 관계망을 활용하여 상하이와 서울을 연결하고, 중문 서적을 들여와 한글로 번역했으며, 기계식 활자인쇄를 도입하고, 전국적 판매망을 구축함으로써 새로운 출판문화를 창출하는 변화를 가져왔다.[1] 이들에게는 이미 중국에서 동아시아 문화적 요소를 수용하여 토착화된 기독교 서적을 가져다 번역하는 편이 훨씬 수월했고, 한국인들은 그러한 메시지를 '잘 처방된 약'처럼 수용했다.[2] 게다가 서구 선교사들은 문해력이 낮았던 일반인과 여성, 아동을 대상으로 교육과 출판사업을 벌였기 때문에 남성 지식인 중심이던 동아시아 출판문화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선교사들이 일반인을 대상으로 성경・교리서・선교학교 교과서 등 각종 서적을 번역하며 한자 중심의 유교적 전통사회에서 소외되었던 한글을 적극 수용하여 한글문화 창출에 공헌한 점도 의미가 크다.[3] 당시 조선 정부와 국내 지식인들도 중국과 일본에서 근대 지식서를 들여왔지만, 이들은 한문을 선호했으므로 번역의 필요성이 시급하지 않았다. 반면 선교사들은 포교를 위해 일반 대중을 독자로 상정하며 순한글 번역을 고집했고, 성리학적 사회구조의 틀 바깥에서 사고했으므로 지식 확산의 범위에서 차이를 보였다. 개항 전까지 서점이 없던 조선의 상황을 고려한다면 이는 혁명이었다. 반면, 당시 외국인에 의해 선별된 신서적이 외국 자본에 의해 국내로 유입되던 정황과 더불어, 그 외국인들이 번역의 목표어로 선택했던 '언문'은 당시 국내 지식인들이 천시하던 문자였다는 점을 비판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이들이 동북아해역에서 형성한 선교 네트워크와

1) 당시 서구 선교사들에 의한 중국과 일본, 한국의 기계식 활자인쇄술 도입에 대해서는 박천홍, 『활자와 근대 : 1883년, 지식의 질서가 바뀌던 날』, 너머북스, 2018 참고.
2) 옥성득, 『한국 기독교 형성사 : 한국 종교와 개신교의 만남 1876-1910』, 서울 : 새물결플러스, 2020, 592쪽.
3) 한국기독교역사학회 편, 『한국 기독교의 역사』 1, 기독교문사, 2012, 157쪽.

그 안에서 이루어진 근대 지식의 전파와 수용 및 번역과 출판사업을 총체적으로 살피는 것은 아주 중요하며,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4)]

이전부터 선교사들의 출판과 번역에 관하여 축적된 대다수의 기존 연구는 교회사 또는 신학 영역의 '문서선교'또는 '성경번역'의 범주 안에서 수행되어 기독교의 한국화나 신학적 논의에 초점을 두었다. 그러나 국내 서구선교사들의 번역사업이 서구문학 번역의 효시로서 지목[5)]된 2010년 이후 어문학계 연구자들이 선교사의 번역사업을 조명하면서 다양한 연구주제들이 나타나고 있다. 우선 선교사에 의해 편찬된 이중언어사전이 국어에 끼친 영향이 연구되기 시작했고,[6)] 선교사에 의해 국내에서 서구문학이 번역된 양상이나[7)] 그와 반대로 한국고전문학이 영어로 번역되어 서구에 소개된 양상도 활발히 연구되고 있다.[8)] 중국에서 서구 선교사들이 설립한 출판기관과 기 발행물도 연구되는 중이다.[9)] 흥미로운 점은 당시 선교사들이 발행한 서적의 종류가 매우 다양하기에 전도문서, 중문소설, 서구번역문학, 한역근대과학서, 중국근대지식서, 중국 근대서학서 등의 명칭으로 불리며 어문학, 비교문학, 중문학, 신학, 교회사, 근대사 등 여러 분야에서 다각적으로 연구되고 있다는 점이다. 선교사-번역자의 경우 제임스 게일의 한국고전 영어 번역에 연구자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점도 눈에 띈다. 한편 보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19세기 말 중국-한국으로 서적이 유입되던 흐름과 영향을 주목한 연구는 최근 들

---

4) 서광덕, 「동북아해역 근대 지식의 형성과정에 대한 연구사 검토」, 『인문사회과학연구』, 20-3. 2019, 26쪽.

5) 김욱동, 『번역과 한국의 근대』, 소명출판, 2010, 99~113쪽.

6) 황호덕, 「개화기 한국의 번역물이 국어에 미친 영향-외국인 선교사들이 본 한국의 근대어」. 『새국어생활』, 22-1, 2012, 5~22쪽; 황호덕, 이상현, 『개념과 역사, 근대 한국의 이중어사전 : 외국인들의 사전 편찬 사업으로 본 한국어의 근대』, 박문사, 2012.

7) 김성연, 「기독교, 전기를 번역하다-식민지 시기 조선예수교서회의 번역 전기 출판」, 『민족문학사연구』, 58, 2015, 185~215쪽; 김용규, 이상현, 서민정 편, 『번역과 횡단 : 한국 번역문학의 형성과 주체』, 현암사, 2017.

8) 이상현, 『한국 고전번역가의 초상, 게일의 고전학 담론과 고소설 번역의 지평』, 서울 : 소명출판, 2013; King, Ross an Si Nae Park eds., *Score One for the Dancing Girl, and other Selections from the Kimun ch'onghwa*. University of Toronto Press, 2016.

9) 박천홍, 『활자와 근대 : 1883년, 지식의 질서가 바뀌던 날』, 서울 : 너머북스, 2018; 박형신, 「영J.알렌의 〈萬國公報〉에 관한 연구」, 『한국기독교와 역사』 49호, 2018, 47~74쪽; 민정기, 심혜영(편), 『동서양의 경계에서 중국을 읽다』, 서울 : 새물결, 2018; 오순방, 『19세기 동아시아의 번역과 기독교 문서선교』, 서울 : 숭실대학교 출판국, 2015 등 다수가 있다.

어 나타나고 있다.[10] 이제는 동북아 해역에서 벌인 서적의 유통에 있어 출판사, 서적상, 구매자로 연결되는 상업적 측면을 점검할 필요와 각국 간의 교류망과 각국 내부의 유통을 파악해야 한다[11]는 연구의 필요성도 제기된 바 있다. 이와 관련, 1881-1896년 사이 한글로 번역된 50권 이상의 중문 기독교 문헌의 목록이 제시되어[12] 매우 고무적이지만, 이 서적들이 어떻게 국내로 유입되어 번역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더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본 연구는 미국 개신교 선교사 호러스 그랜트 언더우드(Horace G. Underwood, 1859~1916)의 중문 기독교문헌 한글 번역을 조명하고자 한다. H.G.언더우드는 미국 북장로교 소속 선교사로 파송되어 1885년에 내한했다. 그는 제중원 교사로 활동하면서 전도와 교육, 출판에 힘썼고 문서사업 측면에서도 많은 행적을 남겼다. 성경 번역 외에도 선교사들의 어학교재로서 『韓英字典』, 『英韓字典』, 『韓英文法』을 편찬했을 뿐 아니라 1890년대 전후 15종의 중문 기독교 문헌을 한글로 번역했다. 동료였던 미북장로교 소속 의료선교사 헤론(John W. Heron, 1856~1890)과 함께 조선성교서회(또는 예수교서회, 현 대한기독교서회)의 설립에 기여했고, 삼문활판소가 설립되기 이전부터 사비를 들여 자신의 집에서 전도용 소책자를 발행했으며, 남대문과 자신의 집 앞 두 곳에서 서점을 운영하기도 했다. 조선성교서회에서는 두 차례(1892-1901년, 1908-1915년), 총 17여 년간 회장직을 역임한 뒤 1916년 사망했다. 역대 서회 회장을 역임했던 선교사 중 언더우드만큼 오랜 기간 회장직을 맡았던 인물은 없었다.[13]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언더우드가 1885년 4월에 내한한 이래 조선성교서회와 삼문활판소를 통해, 또는 개인적으로 중문 기독교 문헌을 다수 번역하여 발행했던 1890년대 중반까지로 연구의 범위를 설정한다. 이 시기에 한국

---

10) 옥성득, 『한국 기독교 형성사 : 한국 종교와 개신교의 만남 1876-1910』, 서울 : 새물결플러스, 2020; 이고은, 「한·중 기독교 지식의 생산 및 유통구조에 관한 연구」.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9; 황종원, 허재영, 김경남, 강미정. 『한국에 영향을 미친 중국 근대지식과 사상』, 서울 : 경진, 2019.

11) 서광덕, 위의 논문, 3쪽.

12) 옥성득, 앞의 책, 2020, 562~566쪽.

13) 이장식, 『大韓基督敎書會 百年史』, 서울 : 대한기독교서회, 1984, 219~220쪽 참고.

으로 전래된 중문 전도문서에 관해서는 이미 옥성득이 자세히 소개한 바 있다.[14] 하지만 그는 이 책들이 한국교회의 토착화에 미친 영향을 논하는 신학적 차원의 의미를 고찰했다. 여기서는 신학적 접근보다 19세기 말, 어느 미국 선교사에 의해 1차 피선교지 중국에서 발행된 중문 서적이 2차 피선교지인 한국에 유입 및 번역되던 과정과 그 문화적 영향에 관심을 둔다. 이를 위해 먼저 H.G.언더우드가 번역한 것으로 알려진 중문 기독교 문헌을 소개하고, 이 책들이 어떻게 국내로 전파되어 번역되었는지 고찰한다.

2. H. G. 언더우드의 번역서 목록과 번역 동기

당시 중국에서 개신교 선교사들이 발행한 서적은 비기독교인에게 기독교의 핵심 교리(하나님의 존재, 창조, 타락, 구속, 회개)를 전하는 한편 기독교인의 신앙을 돕기 위한 두 가지 목적으로 저술되었다. 특히 중국 전통 종교(儒・佛・道) 경전의 문체나 종교적 어휘, 개념을 빌려왔다.[15] 선교사들은 중국인들이 성경을 이해하기 어려워하는 것을 보고 이를 쉽게 풀어 전달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러므로 당시 중국에서 발행된 기독교 소책자류는 성경에 대한 해설서였다고 할 수 있으며, 그 종류도 다양했다. 논리적으로 기독교를 변증하는 교리서, 성경 인물을 주인공 삼아 이야기로 풀어낸 위인전, 그리고 중국 대중들에게 인기 있었던 회장체백화소설(回章體白話小說)의 양식을 따라 오락성과 교훈성을 겸비한 중문기독교소설이 있었다. 소설의 경우 선교사들이 발행하던 정기간행물에 게재되어 독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으며 동아시아에 광범위하게 보급되었다.[16] 이처럼 중국에서 다양한 종류의 소책자가

14) 국문 자료로는 최근에 출판된『한국 기독교 형성사 : 한국 종교와 개신교의 만남 1876-1910』, 서울 : 새물결플러스, 2020, 영문 자료는 Oak, Sungdeuk, *Sources of Korean Christianity*, The Institute for Korean Church History, 2004; Oak, Sungdeuk, *The Making of Korean Christianity,* Baylor Univ. Press, 2013.

15) 오순방, 2015, 376쪽; 옥성득, 위의 책, 559쪽.

16) 오순방, 2015, 46쪽.

발행된 이유는 지식인과 일반인, 아동이라는 다양한 집단으로 구성된 대중 독자들의 눈높이에 맞추기 위한 전략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언더우드는 번역을 위해 재미를 위한 소설류보다는 논리정연한 교리변증서를 주로 선택했다. 비슷한 시기 그의 동료 선교사들이 『쟝원량우샹론』(1892, 사무엘 마펫 역), 『인가귀도』(1894, 프랭클린 올링거 역), 『텬로력뎡』(1895, 제임스 게일 역) 같은 소설류 기독교 서적을 번역한 것과 차이를 보인다. 그 이유는 당시 한글 성경 번역이 완료되지 않았던 정황과 더불어 언더우드가 보수적인 목회자이자 열성적인 전도자였다는 점으로 이해할 수 있다. 언더우드는 1886년부터 교회 공동체와 고아원(경신학교의 전신)을 설립했다. 이곳에서 한국인들을 가르칠 교재가 긴급히 필요한 상황인지라, 분량이 긴 성경을 대신해서 간단히 기독교 교리를 전할 수 있는 교리서를 우선 번역해야 했다. 특히 초기 정착기의 선교사들에게는 현지인에게 세례를 주고 교회를 설립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문답식 교리서이다. 또 언더우드는 엘린우드에게 문서 사업에 대해 보고할 때 세속적 출판물(사전・문법서)과 종교적 출판물(성경・전도용 소책자)을 구분한 뒤 종교물에 대해서만 따로 보고할 정도로 보수적인 성향을 보였다. 따라서 철저히 신학적이기보다 문학적 요소가 가미된 소설류에 대해서는 선택을 지양했다고 볼 수도 있다.

언더우드는 중국에서 오랜 기간 사역하며 중국을 잘 이해하는 대선배급 선교사들의 저술을 가져다 번역했다. 예를 들면 『萬國公法』의 중국어 번역자이자 북경대학교의 초대 총장이었던 윌리엄 마틴(W.A.P.Martin), 산둥 지역에서 40여년을 교육과 목회사업에 헌신한 경험으로 한국의 젊은 선교사들에게 멘토 역할을 했던 존 네비어스 부부, 한커우 지역에서 화중성교서국(華中聖敎書局)을 설립하고 이끌며 '문서선교의 아버지'라 불리던 그리피스 존(Griffith John)이 여기에 해당된다. 마틴과 네비어스 부부는 언더우드와 같은 미국 장로교 소속이었고, 그리피스 존은 회중교회와 영국 런던선교회 소속 선교사였다.

언더우드는 1888년 엘린우드에게 보내는 서신에서 윌리엄 마틴의 『天道溯原 Evidences of Christianity』, 존 네비어스(John L. Nevius) 부부의 『恒心

守道 Christian Perseverance』와 『兩教辨正 Romanism and Protestantism』을 번역했다고 언급한다.[17] 하지만 윌리엄 마틴의 『天道溯原』은 완역, 출판되지 못했고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과 네비어스 부부가 각각 저술한 『恒心守道』와 『兩教辨正』의 한글 번역본은 현전하지 않는다.[18] 1890년에 창립된 조선성교서회의 최초 발행물 『셩교촬리』는 언더우드가 번역한 그리피스 존의 『聖教撮理』였다. 이후로도 언더우드는 그리피스 존의 중문 소책자들을 연달아 번역했다. 이외에도 1893년에 네비어스 선교사의 부인 헬렌 네비어스의 『耶穌教官話問答』을 번역하여 조선성교서회에서 발행했다. 이 외 다수의 번역서를 아래 표로 제시한다.

[표1] 언더우드의 번역서 발행 목록

발행 연도	제목	중문 제목	영문 제목	원저자	(원)발행처
?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耶蘇教要理問答	Westminster Shorter Catechism	미상	(上海美華書館,1866)
?	천도소원	天道溯源	Evidences of Christianity	William A.P. Martin	(浙甯華花書局,1860)
?	항심수도 (성도견인)	恒心守道 (聖徒堅忍)	Perseverance in the Divine Life (Christian Perseverance)	Helen S.C. Nevius	(上海美華書館,1889)
?	양교변정	兩教辨正	The Romish and Protestant Churches Compared	John Nevius	(上海美華書館,1889)
1890	셩교촬리	聖教撮理	Salient Doctrines of Christianity	Griffith John	(미상) 조선성교서회
1891	샹뎨진리	上帝眞理	The Nature of God (The True Doctrine of Sang Jei)	Griffith John	(漢鎭英漢書館,1892) 그리스도셩셔
1891	권즁회개	勸衆悔改	Exhortation to Repentance	Griffith John	미상
1891	예수교문답 (구세교문답, 개정판)	耶穌教官話問答	Christian Catechism	Helen S.C. Nevius	(上海美華書館,1863) 조선성교서회, 1894 개정판 1895
1893	즁싱지도	重生之道	Regeneration	Griffith John	그리스도셩셔

17) 이만열, 옥성득 편역, 『언더우드 자료집』 I, 연세대학교출판부, 2006, 659쪽.
18) 이만열, 옥성득 편, 『언더우드 자료집』 I, 연세대학교출판부, 2006, 277쪽 각주 260 참고.

1893	신ᄌᆞ소득지진복	信者所得之眞福	True Way of Seeking Happiness	Griffith John	미상
1893 ?	덕혜입문	德慧入門	Gate of Virtue and Wisdom (Gate of Virtue and Knowledge)	Griffith John	(上海美華書館,1879) 미상
1894	삼요록	三要錄	The Three Principles	William A.P. Martin	(미상) 졍동예수교회당
?	영혼문답	靈魂問答	Questions and Answers to my Soul	Griffith John	미상
?	ᄃᆡᄌᆞ지명	大主之命	The Lord's Command	미상	미상
1895	진리이지	眞理易知	An Easy Introduction to Christianity (Controverted Points of Christianity)	D.B.McCartee	(福州城內金粟山, 1863) 예수셩교회당
1896	부활쥬일례ᄇᆡ	復活主日禮拜	Easter Sunday Worship	미상	미상

*음영을 채운 칸은 *Korean Repository* (1896)에 "Publications of H.G.Underwood"로 광고된 것들이다.

언더우드가 이처럼 번역에 헌신한 동기는 여러 가지이나, 그중에서도 특히 천주교와의 경쟁심이 크게 작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언더우드는 내한 초기부터 천주교의 한글 출판물을 경쟁상대로 인식하며 한글로 쓰인 책자의 중요성을 간파하고 있었다. 1886년 당시 천주교 신부들 10명 중 8명이 한국어에 능통한 점, 이들이 보유한 한글 문서가 당시 외국인이 국내에서 만들어낸 출판물 중 최고 수준이었다는 점[19]이 언더우드의 한국어 습득과 한글 소책자 발행에 힘쓰는 강력한 동기로 작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언더우드는 열성적인 전도자였다. 외국인의 포교 활동이 공식적으로 허락되지 않은 상황에서 수차례 지방으로 전도 여행을 강행하여 동료 선교사들의 비난을 받기도 했다. 그는 한글보다 한문에 익숙한 지식인을 만났을 때 중문 복음서와 소책자를 이용하여 전도했고, 이때 중문 소책자가 한국인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는 것을 수차례 경험하면서[20] 그 유용함을 깨달았다.

19) "... they[the Romanists] have just added to their Korean Romanist literature several tens of tracts, all of which are neat specimens of work, and go far ahead of any other Korean printing that has yet been done by foreigners." Letter from H. G. Underwood to F. F. Ellinwood, 1886.1.31. 이만열, 옥성득 편역, 『언더우드 자료집』 I, 연세대학교출판부, 2006, 24~25; 369쪽.

1890년대에는 아직 성경번역 위원회의 번역작업이 완료되지 않았고, 한글성경은 1911년에 가서야 신구약이 완역되었다. 따라서 그 이전 시기에는 개신교 교리를 핵심적으로 요약한 중문 소책자가 내용상으로나 유통상으로나 간편하고 유용했다. 당시 선교사들의 언어역량이 한국어로 번역을 시도할 만큼 충분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이미 중국에서 동아시아 지식인을 대상으로 1차 현지화를 거친 중문 기독교 문헌은 한국의 선교사들에게 매우 유용한 도구였다. 특히 언더우드는 만주의 존 로스가 번역한 성경의 사용을 반대한데다가 이수정이 번역한 성경 역시 크게 쓸모가 없다고 보았다. 선교사의 개입 없이 본토인들만이 수정하고 검토할 수 있었던 성경 역본은 위험하다고 여기기도 했다.[21] 따라서 언더우드는 새롭게 성경을 번역하는데 힘쓰는 한편 이미 중국에서 검증된 중문 소책자를 적극 활용한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포교활동 인허와 관련된 조약상의 변화라는 사회정치적 요인도 그가 적극적으로 문서선교에 투신하는 배경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1886년 체결된 조불수호조약 조문으로 인해 프랑스 천주교 선교사들이 공식적으로 활동상의 자유를 얻게 되자 미국 개신교 선교사들도 조선 정부가 기독교 포교 활동을 용인하게 된 것으로 받아들였다. 하지만 아직 조심스러운 상황이었다. 언더우드는 1890년 사전과 문법서, 소책자 인쇄를 위해 일본을 방문했고 귀국하는 길에 개항장 부산에 들러 세관장 프레드릭 씨로부터 외국인의 기독교 서적 반입이 조약상의 권리로 보장된다는 것을 전해들었다.[22] 그러면서 언더우드는 부산을 선교 거점으로 삼고 소책자와 기독교 서적을 현명하게 반포하면 남한 거의 전 지역으로 다가갈 수 있는 수단이 될 것으로 내다보았다. 이처럼 급변하는 국내의 정치외교적 정황 속에서 선교사가 갈 수 없는 곳까지도 들어갈 수 있는 소책자류를 발행하는 것은 당시 중국이나 한국의 선교사들 사이에서 포교에 매우 유용한 도구로 인식되고 있었다.

---

20) H. G. Underwood to F. F. Ellinwood, 1886.7.9.『언더우드 자료집』I, 35-38; 382~384쪽.
21) H. G. Underwood to F. F. Ellinwood, 1886.4.16.『언더우드 자료집』I, 38; 380쪽.
22) 이만열, 옥성득 편역,『언더우드 자료집』I, 2006, 212-3쪽.

3. 언더우드의 중문 전도문서 입수 경위

앞서 제시한 대로 언더우드는 1890년을 전후로 약 15종의 중문 소책자를 한글로 번역했다. 어떻게 이처럼 다양한 중문 소책자를 입수할 수 있었을까? 그 경위는 언더우드가 중국에서 사역하던 선교사들과 맺었던 개인적 교류망에서 찾아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언더우드의 초기 번역물 다수가 중국 한커우에서 사역하던 영국 선교사 그리피스 존의 저술이었던 이유는 영국성서공회의 북중국 지부 총무 브라이언트[23]와 연결해볼 수 있다. 그가 1888년에 한국을 방문했을 때 언더우드에게 서울에서 베이징까지 육로로 여행하는 데 동행하기를 제안했다.[24] 이때 언더우드는 약 4주의 여행을 계획했지만 실제로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브라이언트는 중국 한커우에서 활동했던 경력이 있으므로 1876년에 설립된 한커우 서회와 연결되어 있었을 것이며, 당시 한커우 서회 회장이자 같은 영국 출신 선교사인 그리피스 존의 저작을 언더우드에게 소개해주었을 가능성이 크다. 이 외에도 1890년 6월에 방한했던 선교사 네비어스(John L. Nevius) 부부의 영향력도 컸다. 언더우드와 마찬가지로 미국 북장로회 소속이던 네비어스 부부는 당시 중국 지푸에서 활동 중이었는데, 이미 중국선교 경력이 30년이 넘는 노련한 선교사들이었다. 반면 당시 한국에서 활동하던 선교사들은 대부분 20-30대의 젊은 청년이라 경험이 부족한데다 한국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초기라 선교방법론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었다. 이들은 네비어스가 쓴 논문과 저서를 연구하며 그의 선교정책을 한국의 상황에 적용시키고자 했다. 북장로교에서는 1년 뒤인 1891년에 자진전도(Self-Propagation), 자력운영(Self-Support), 자주치리(Self-Government)를 대표로 하는 네비어

---

23) 에반 브라이언트(Evan Bryant, 1839~1918). 영국 웨일즈(Wales Glams) 출생. 1865년 런던선교회에서 목사안수를 받고 중국 후베이성(湖北)의 한커우(漢口)로 파송되어 1880년까지 활동하다가 아내가 아파 영국으로 돌아갔다. 이후 1884년 영국성서공회에 의해 북중국지부(톈진)로 파송되어 총무로 활동했으며, 1892년 아내의 병세가 악화되자 베이징으로 옮겨 1895년까지 활동하다가 영국으로 돌아갔다. 박형우 편역, 『존 W. 헤론 자료집』 I, 선인, 2017, 215쪽 참고.

24) H. G. Underwood to F. F. Ellinwood, 1885.5.21. 『언더우드 자료집』 I, 105쪽.

스의 제안을 선교정책의 기본으로 삼아 북장로회 선교회 규칙(Presbyterian Northern Mission Rules and By-Laws)을 제정했다.[25] 언더우드는 이들 부부가 서울을 방문한 뒤 1년이 지난 1891년에 네비어스 부인의 『耶穌教官話問答』을 번역하여 『예수교문답』이라는 제목으로 발행했고, 『성도견인 聖徒堅忍』과 『양교변정 兩教辨正』도 번역했다. 이를 보아도 중국이 선배 선교사들이 한국을 방문할 때 언더우드가 이들로부터 중문 소책자를 입수한 것으로 추정된다.

게다가 언더우드는 조선성교서회라는 출판기관을 통해 중국의 기독교 출판사들과 연결될 수 있었다. 개항기 한국에서는 선교사들이 선박 경로를 통해, 그리고 성교서회(the Religious Tract Society), 성서공회(the Bible Society)와 같은 초국가적 기독교 기관의 연결망을 통해 중국과 일본의 활자와 인쇄물을 국내로 유통시키고 있었다. 언더우드는 1890년 조선성교서회가 설립되었을 때 통신서기(corresponding secretary)를 맡아 영국의 Religious Tract Society와 미국 American Tract Society에 후원을 요청했다. 이뿐 아니라 상하이 중국성교서회의 지역 담당(Local secretary) 역할을 맡으며 중국과 한국 사이의 서적 유통에 관여하고 있었다.[26]

이러한 언더우드의 폭넓은 행보는 그가 안식년과 아내의 병가 등의 이유로 중국과 영국, 미국을 방문할 당시에 중국의 선교사들과 맺었던 관계에서 기인한다. 따라서 언더우드는 기관의 채널을 통해서도 중국에서 책을 들여오거나 저자인 중국의 선교사들과 연결되기도 수월했을 것이다. 예를 들어 그리피스 존은 1894년 개최된 한커우 중부성교서회 연례회에서 최근 자신의 저서가 한국어로 번역되었다는 점을 알리면서 한글 번역본을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에게 보여주었다.[27] 당시 그리피스가 입수한 한글 번역본의 제목이 무엇이었는지는 구체적으로 기록되지 않았지만, 언더우드가 그의 소책자 번역본을 연달아 발행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저자가 그 사실을 알고 있

25) 한국기독교역사학회 편, 『한국기독교의 역사 I 개정판』, 기독교문사, 2011, 174-5쪽.
26) 이고은, 「조선성교서회의 초기 역사(1890-1919) 재고찰」, 『한국기독교와 역사』, 52, 2020, 115-120쪽.
27) *Annual Report of the Central Chinese Religious Tract Society*, 1894, p.23.

었다는 점에 의미를 부여할 만하다. 또한 언더우드가 윌리엄 마틴(William Martin)의 『天道溯原』을 번역하게 된 경위도 '저자가 동의했을 뿐 아니라 실상은 저자의 요청으로 번역본을 준비했다'[28]고 밝힌 것처럼, 재중 선교사들과 재한 선교사들의 네트워크는 긴밀했던 것으로 보인다.

4. 언더우드와 번역자들, 그리고 번역서의 독자들

언더우드가 번역한 서적들은 19세기 중국과 한국에서 선교사업을 벌이던 서구 선교사들이 동아시아 문화와 종교를 바라보는 시선, 중국에 이어 한국 독자들을 목표로 2차 현지화를 위해 취한 전략, 번역자와의 공동작업을 조명함으로써 그 역사적·종교적 의미를 헤아릴 수 있다. 당시 기독교계의 한글 사용은 지식인들의 냉대를 받던 언어체계를 새로운 지식을 전달하는 매체로 전환시킴으로써 그 위상이 높아지는 데 기여했다. 이는 서구인들에 의해 한국어가 한자문화권을 초과하는 단위로 재편되면서 '국어'가 형성되는, 역사적으로 중요한 과정이었다.[29] 언더우드와 함께 성경과 중문 기독교 문헌 번역에 매진했던 송순용(송덕조)의 경우, 1907년경 주시경과 지석영 등과 함께 국문연구소 위원으로 활동하게 되었다[30]는 점으로 보아도 선교사들의 번역사업이 개항기 한국의 지식인들과 일반 대중, 그리고 한국의 언어와 문화에 끼친 영향을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언더우드의 한국어 실력은 동료 선교사들도 매우 탁월하다고 인정받을 정도였지만 그가 앞서 제시한 10여 종의 책을 직접 번역한 것은 아니다. 아무리 언더우드가 한국어를 빨리 습득했다 하더라도 글을 쓸 수 있을 정도의 실력을 배양하려면 꽤 오랜 시간이 필요한 법이다. 당시 번역작업은 중문이

---

28) "There are now under way translation of Dr. Martin's 'Evidences of Christianity,' which has been prepared with the consent and virtually at the request of the author..." 1891년 언더우드의 개인 연례보고서. 『언더우드 자료집』 I, 659쪽.

29) 이상현, 「언더우드의 이중어사전 간행과 한국어의 재편과정」, 『동방학지』 151, 2010, 226쪽.

30) 이숙, 「언더우드를 가르치고 국문연구소 위원으로 활동한 송순용」, 『기독교사상』 722, 2019, 156쪽.

저본이었으므로 거의 전적으로 한국인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본다. 주로 선교사의 어학교사였던 이들, 중문(한문)을 독해 가능한 한국 지식인이 번역 조사로 고용되어 주어진 텍스트를 한글로 번역한 뒤 언더우드에게 낭독하고, 언더우드는 이를 듣고 수정을 지시하는 식이었다. 중문 기독교 소책자를 번역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번역하기 위해 선교사들이 헬라어와 영어를, 한국인 조사들이 중국어와 일본어 성경을 동시에 참고했던 것과는 다른 과정을 거쳐야 했다. 그런데 이때 언더우드와 함께 했던 한국인 번역조사는 여러 명이었다. 그가 번역 방식에 대해 1891년 개인 연례보고서에서 언급한 부분을 아래에 인용한다.

> 성경 사업에 덧붙여 상당히 많은 시간을 소책자 준비에 사용했으며 『성교촬리』가 조선성교서회에서 출판되었습니다... 지난 일년간 다른 일을 하면서 틈틈이 상황이 허락하는 대로 여러 새 찬송들도 번역했으며 이전에 번역한 찬송들은 조심스럽게 수정했는데... (중략) 가장 이해하기 쉬운 용어를 채택하려고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으며, 현재까지는 문어에 해당하는 문자인 한자어만을 사용했는데 용어를 이해할 수 있는 접촉점이 될 것입니다. 한국인 한두 명의 결정에 따르지 않았고 고전에서 사용한 경우에만 최종적으로 채택했습니다. 본 위원회는 모든 문서 작업에서 이를 규칙으로 삼으려고 노력했습니다. 한국인 번역조사들과 작업에 참가하는 조사들은 2명에서 최대한 5명까지 고용했고 어떤 때는 다수의 필사 서기를 계속 고용했습니다. 종이와 잉크와 임금 등의 비용은 대부분 개인 자금으로 지불했으며 선교회는 매월 4달러만 지원했습니다.[31]

이를 볼 때 적어도 1890년까지는 언더우드의 번역이 그의 어학교사였던 송순용과의 공동작업으로 이루어졌고,[32] 그 이후부터 번역자의 수가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송순용은 앞서 천주교 선교사들과 함께 『한불ᄌᆞ뎐』을 편집

31) "언더우드의 1891년 문서 사업 보고서," 이만열, 옥성득 편역, 『언더우드 자료집』 I, 2006, 276~277; 659~660쪽.

32) 송순용에 대해서는 이숙, 앞의 논문, 145~158쪽 참고.

하는데 관여하면서 축적했던 한국어 연구 결과를 개신교 선교사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했다. 덕분에 당시 언더우드는 사전과 문법서를 편찬하며 한국어를 빠르게 습득할 수 있었다. 그런데 언더우드가 1890년에 신약전서의 번역을 위한 위원회를 맡고, 북장로회 선교회의 기독교 문서사업을 담당하게 되면서 1891년에 이르러서는 송순용 외에 여러 명의 번역자를 고용한 듯하다. 당시 북장로회 선교부의 정책에 의하면 선교사 부부가 어학선생 한 명만을 고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언더우드가 추가로 고용한 번역자의 임금을 개인적으로 지불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가 설립한 경신학교 학생들도 필사자로 고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애초에 고아들을 모아 학교를 설립한 이유는 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쳐 기독교를 전하는 전도인이나 전도용 소책자를 발행할 수 있는 인력으로 키우기 위한 목적도 포함되었기 때문이다. 이후 언더우드는 다수의 한국인 번역자들을 감독하는 역할을 맡으며 번역사업에 주력했다.

> 지난번 연례회의는 저에게 〈한영문법〉의 '문법편'의 개정작업을 맡겼는데, 저는 이 분야에 사용할 몇 권의 책을 출판했습니다... (중략) 우리는 또한 일부 유용한 책들을 번역하고 있는 한국인 번역자들을 통해 상당히 많은 일을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것을 출판해서 사람들에게 좋은 기독교 문서를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33]
>
> 저의 지도 아래 진행되는 문서 사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수의 한국인들을 지시하고 감독했을 뿐만 아니라 일부는 저 자신이 직접 번역을 했습니다.[34]

여기서 나타나듯이 언더우드가 한글 문서를 '자신이 직접' 번역했다고 밝히는 시기는 1911년이다. 따라서 그 이전에는 한국인 번역자들이 중문 기독교 문헌의 번역 과정에서 문체나 어휘의 선택에서 절대적인 역할을 맡았다고 할 수 있다.

---

33) "언더우드의 1910년 개인 연례보고서" 이만열, 옥성득 편역, 『언더우드 자료집』 IV, 125; 517쪽.
34) "언더우드의 1911년 개인 연례보고서" 이만열, 옥성득 편역, 『언더우드 자료집』 IV, 128; 521쪽.

당시 선교사들이 주도한 한글 번역사업은 한글의 발전뿐 아니라 지식인 등 소수에게 한정되어 있던 출판과 독서문화를 일반인의 영역으로 확장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또한 중국에서 지식인 대상으로 쓰인 책이 한글로 번역되면서 목표 독자의 범위가 일반인으로 확장되는 변화도 나타났다. 예를 들어 언더우드가 번역・출판한 책은 그가 설립한 고아학교(경신학교의 전신)와 교회의 교재로 사용되었고, 노방전도 때도 활용되었다. 특히 고아학교에서는 기독교 소책자를 활용하여 한글과 한문을 모두 가르치도록 했는데, 아이들을 전도인 또는 전도용 소책자를 생산할 인력으로 교육할 목적이었다. 이 외에도 소책자는 병원 대기실에서 환자들에게 나누어 주거나 한국교회 전도인 교육에도 사용되었다. 언더우드가 북장로회 한국선교부 보고서에서 언문 및 중문 소책자를 활용하던 방식을 언급하여 아래에 인용한다.

> 지난 보고서에서 이곳 학교의 소년 중 소수만이 언문을 읽을 수 있다고 보고했습니다만, 이제는 열 명쯤 되는 어린아이들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읽을 수 있습니다. 나머지 열 명은 현재 철자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두 시간은 언문 글자를 쓰게 하고 있습니다. 이 소년들을 언문 필사자(copyist)라는 귀한 보물로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일주일에 세 시간은 한문을 쓰게 합니다. 기포드 부인은 이 아이들에게 성경을 인용한 언문 소책자를 강의하며 귀중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전도자 서씨는 보다 큰 아이들에게 잘 선별된 중문(Mandarin) 소책자를 가르치며 그 유용한 글자를 처음 배우게 하고 있습니다...
>
> 병원의 각 병실에는 서적과 소책자가 보급되며 모든 입원환자들을 가르치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애비슨 박사는 모든 방문자를 위해 사랑(sarang)이라는 응접실을 두어 소책자와 전도를 통해 복음이 전파되는 도구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35]

언더우드가 속한 장로교뿐 아니라 감리교에서도 『천도소원』과 『덕혜입문』, 『인가귀도』 같은 중문 기독교 문헌을 전도인 교육에 사용했다. 게다가 언더

35) *Narrative Report of the Work of the Presbyterian Mission, North, in Korea from Nov.1893 to Dec.1894*, 1894, pp.8~11

우드는 자신의 집 앞과 남대문 두 곳에서 서점을 운영하여 교회 공동체 바깥으로도 서적을 유통했다. 당시 책과 함께 키니네를 판매하도록 하였는데, 키니네 판매 수입으로 권서들의 활동비를 충당하도록 했다. 하지만 이같은 행위는 훗날 재한 외국 상인들이 선교사가 상업적인 일을 한다는 비판을 받으며 그만두게 되었다. 언더우드가 다양한 장소에서 다양한 목적으로 중문 기독교 문헌을 활용했음을 알 수 있다.

5. 언더우드의 번역서와 관련된 몇 가지 문제

당시 국내에 사설 인쇄소가 열악하던 형편 때문인지 언더우드의 번역서는 발행처가 불명확했고, 책 한 권을 쪼개어 여러 권의 소책자로 발행하기도 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당시 선교사들이 책의 제목을 영문 또는 중문으로 표기할 때 일관적이지 않았기에 같은 책을 다른 책으로 오인할 소지도 보인다. 그 때문인지 같은 책이 다른 번역자에 의해 중복 번역되는 문제가 있었던 것 같다.

우선 앞서 언급했듯 1880년대 말~1890년대 전후로 언더우드가 번역했다고 보고서에서 언급한 문헌 중 번역본이 현전하지 않는 것이 있고, 발행연도나 발행처가 불분명한 것이 있다. 언더우드는 1891년 무렵 그의 집에 사설 인쇄소를 만들어 『샹뎨진리』와 『권즁회개』 등 소책자들을 출판하면서 '그리스도셩셔', '예수셩교회당' 혹은 '경셩정동교회당간' 등의 이름을 사용하였다.[36] 이만열은 그가 1891년부터 사용했던 "그리스도 셩셔"라는 발행처 명칭이 1894년경부터 "예수교회당", "경셩정동예수교회당", "한셩정동예수교회당"으로 바뀐 점을 지적하면서 언더우드가 그 자신의 개인 번역 저작물들과 타인의 몇몇 번역 저작물들을 "그리스도 셩셔" 혹은 "예수교회당"의 명의로 출판하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고 일찍이 의문을 제기한 바 있다.

36) 이만열, 2001, 26쪽.

또한 당시 "죠션셩교셔회"와 "언더우드의 출판물들"의 관계도 의문이지만 해답을 뒤로 미룰 수밖에 없다[37] 하였다.

이만열이 제기했던 문제는 최근 조선성교서회 초기 간행물에 관한 고증 연구로 일부 설명되었다.[38] "정동교회간인"인 경우 조선성교서회에서 외부 기금인 장로교기금으로 발행되었다는 것이다. 이혜원에 의하면 한국 개신교 초기 출판물에 대한 혼란이 야기되는 가장 큰 이유는 당시 발행된 책 뒷면에 판권 표기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39]. 이는 당시 열악했던 국내 인쇄소의 형편을 고려한다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다. 하지만 여전히 언더우드가 이들 서적 중 어떤 것은 개인적으로 출판하고 다른 것은 장로교 출판물로써 발행했는지, 왜 그래야 했는지가 모호하다. 앞서 제시된 표에서 음영 처리된 책들은 1896년 *Korean Repository*에 "언더우드 출판물(Publications of H.G.Underwood)"로 광고된 것들인데, 여기에는 당시 조선성교서회에서 발행된 것과 언더우드가 개인적으로 출판한 것이 함께 광고되고 있다. 그렇다면 당시 언더우드가 발행했던 것 중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천도소원, 성도견인, 샹뎨진리, 덕혜입문과 세 장, 대쥬지명, 진리이지 같은 개인 출판물의 경우 그가 번역한 소책자들을 개인적으로 발행한 것인지, 장로회 선교부 문서선교의 일환으로 출판한 것인지의 구분이 현재로서는 모호하다. 선교사업과 직결되는 전도용 소책자들이었음에도 장로회 출판기금으로 발행되지 않았던 것인지, 언더우드가 개인 사비로 발행했기 때문에 "언더우드 출판물"로 광고되었던 것인지는 확실치 않다.

언더우드는 한 권의 책을 여러 소책자로 나누어 발행하기도 했던 것으로 보인다. 『권즁회개 勸衆悔改』(1891), 『즁생지도 重生之道』(1893), 『신자소득지진복 信者所得之眞福』(1893)은 모두 그리피스 존이 저술한 『덕혜입문』의 일부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각 제목이 『덕혜입문』의 11장, 17장, 18장과 동일하며, 연세대학교에 소장된 『즁생지도』를 『덕혜입문』의 11장과 비교해

37) 이만열, 『韓國基督敎文化運動史』, 大韓基督敎出版社, 1987, 316~318쪽.
38) 이혜원, 「조선성교서회 초기 간행물에 대한 재 고찰」, 『한국교회사학회지』, 55, 2020, 499~535쪽.
39) 이혜원, 위의 논문, 2020, 511쪽.

보니 마지막 부분에 언더우드가 문답식으로 추가한 부분을 제외하면 내용상 동일하다. 따라서 현재 한글본 『덕혜입문』이 1893년에 초판된 것으로 알려진 점[40]은 재고가 필요하다. 1898년 예수교서회의 연례보고서에는 덕혜입문의 한글 번역본 원고를 심사위원회에 넘겼다는 기록도 보인다.[41] 이때의 번역자가 누구인지 밝혀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언더우드가 준비한 번역본인지 확인할 수는 없다. 어쨌든 1893년경 국내의 열악했던 사설인쇄소 형편과 번역인력이 부족했던 정황을 고려한다면 한국어역 『덕혜입문』은 1893년에 전권이 초판되기보다 일부분만 번역되어 발행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도 언더우드가 중국에서 책을 들여와 번역할 때 책의 영문·중문 제목이 일관되게 기록되지 않거나, 저자를 다른 사람으로 오인하는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아마 선교사들이 한문이 익숙하지 않은 상황이라 한문 원제 대신 영어 제목을 각자 편의대로 사용하면서 같은 책을 다른 책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발생했던 것이 아닐까 싶다. 언더우드도 엘린우드에게 개인 연례보고서를 쓰면서 현재 번역 중인 중문 기독교 책자를 언급할 때 책의 영어 제목을 임의대로 기록하였다. 예를 들어 존 네비어스의 『兩教辨正』(The Romish and Protestant Churches Compared)을 편의대로 “Romanism and Protestantism”이라고 기록하거나, 네비어스 부인의 『恒心守道』(Perseverance in the Divine Life)를 간단히 “Christian Perseverance”로 기록했다.[42] 게다가 네비어스 부인이 저술한 책을 그녀의 남편 존 네비어스의 저술로 오인하고 있었다.[43] 당시 언더우드는 중국에 있던 선교사들과 교류하면서 이들의 추천을 받는 등 개인적인 경로로 중문 서적을 입수했지, 공식 카탈로그를 보면서 책을 주문한 것은 아니었다. 그런 상황에서라면 서명이나 저자명의 오

---

40) 이장식, 『대한기독교서회백년사』(대한기독교서회, 1984), 297쪽; 옥성득, 『한국 기독교 형성사 : 한국 종교와 개신교의 만남 1876-1910』, 서울 : 새물결플러스, 2020, 565쪽.

41) *Annual Report of the Korean Religious Tract Society*, 1899, p. 8.

42) 이와 관련, 옥성득도 헬렌 네비어스의 『恒心守道』를 『聖徒堅忍』으로 기록하였으나, 헬렌 네비어스의 저서 목록에는 『聖徒堅忍』이라는 제목이 없다. 참고 : Helen S.C, Nevius, *Descriptive Catalogue of Books and Tracts by the Rev. John Livingston Nevius, D.D. and Helen S. Coan Nevius,* Shanghai : American Presbyterian Mission Press, 1907.

43) 이만열, 옥성득 편역, 『언더우드 자료집 I』, 659쪽, 660쪽 각주 8 참고.

기는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일이다. 다만 연구자의 입장에서 이를 오류 또는 문제라고 규정할 뿐이다. 향후 이 부분과 관련하여 개신교 전래 초기 한글로 번역된 중문 기독교 문헌의 저본을 검증하는 작업이 요청된다.

언더우드의 초기 번역물로 알려진 책을 이후 다른 선교사가 거듭 번역한 것으로 보이는 사례도 발견된다. 『덕혜입문』의 경우 언더우드가 1893년에 번역본을 발행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44] 앞서 언급했듯이 예수교서회의 연례보고서에서는 번역자가 누구인지에 관해서는 언급하지 않은 채 1898년 4월 4일에 덕혜입문의 한글 번역본 원고를 심사위원회에 넘겼다는 기록이 보인다.[45] 그런데 북장로교 한국지부의 1902년과 1903년의 보고서에서 또 다시 스왈른이 『덕혜입문』의 영어제목인 "Gate of Wisdom and Virtue"를 중국어에서 한국어로 번역하고 있다는 기록이 있다.[46] 1898년에 조선성교서회에서 검토 중이던 원고가 언더우드의 번역본이라면, 이후 같은 북장로교 소속의 스왈른이 의도적으로 재번역을 한 것인지 의문이다. 두 번째 사례로 언더우드가 번역했다는 『천도소원』의 경우, 언더우드가 번역한 것은 현전하지 않지만일부분이 한글로 번역되어 1907년에 감리교의 정기간행물 〈신학월보〉에 실렸다.[47] 이 월보는 당시 G.H.존스가 편집인이었고, 여기서 "신학"란에 '증거론'이라는 제목으로 한글 번역된 천도소원의 앞부분이 게재되었다. 월보의 표지에는 이 원고를 '죠원시'[48]가 담당한 것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언더우드가 이전에 준비한 『천도소원』의 번역본 원고를 존스가 받아서 사용한 것인지, 아니면 존스 또는 감리교의 누군가가 새로 번역한 것인지 알 수가 없다.

---

44) 이장식, 1984, 297쪽; 옥성득, 2020, 565쪽.

45) *Annual Report of the Korean Religious Tract Society*, 1899, p. 8; 이혜원, 앞의 논문, 514쪽.

46) "Report of the Editorial Committee," *Minutes and Reports of the Eighteenth Annual Meeting of the Korea Mission of the PCUSA,* 1902, pp.31~34.

47) 『신학월보』 5, 4-5, 1907, 139~171쪽.

48) 감리교 초기 선교사 G.H.존스의 한국식 이름이다.

6. 결론

본 연구에서는 선교사 언더우드를 중심으로 19세기 말 중문 기독교 문헌이 한글로 번역되던 맥락 고찰을 목표로 했다. 초기 한국 개신교 역사를 논할 때 대표적인 인물, H.G. 언더우드가 어떤 중문 기독교 문헌을 가져다 번역했는지, 그 동기와 중문 기독교 문헌을 입수하게 된 계기, 그리고 언더우드 주변의 번역자와 독자에 대해 논의하였다. 또한 향후 이 주제를 연구할 분들을 위해 몇 가지 유의해야 할 문제를 지적했다. 이처럼 19세기 말 외부인에 의해 새로운 지식이 유입・번역・수용되며 한국문화에 끼친 영향이 매우 크다는 것을 인식하지만, 본 연구는 개괄에 그칠 뿐이다. 당시 번역된 텍스트들이 보이는 특징을 분석하는 본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이들 서적에서 선교사들이 중국 고전을 전거로 활용하는 방식에 대한 비판적 고찰이 필요하고, 중문 원문과 한글 번역본을 대조하여 번역자의 번역태도와 방식을 분석하는 작업도 필요하다. 당시 통일되지 않았던 한글 표기법(철자, 띄어쓰기, 구두점, 문단 전환 등)의 변화 양상도 흥미로운 주제이며, 중국>한국 또는 중국>일본>한국으로 나타나는 언어횡단 현상에 대한 연구도 어문학적으로 의미가 크다. 특히 원문과 번역문을 대조하여 내용상 2-3차 현지화를 거치면서 한국에 맞게 변용된 부분을 검증하고 확인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김욱동, 『번역과 한국의 근대』, 소명출판, 2010

박천홍, 『활자와 근대 : 1883년, 지식의 질서가 바뀌던 날』, 너머북스, 2018.

박형우 편역, 『존 W. 헤론 자료집 I』, 선인, 2017.

서광덕, 「동북아해역 근대 지식의 형성과정에 대한 연구사 검토」, 『인문사회과학연구』, 20-3, 2019.

옥성득, 『한국 기독교 형성사 : 한국 종교와 개신교의 만남 1876-1910』, 새물결플러스, 2020.

이고은, 「조선성교서회의 초기 역사(1890-1919) 재고찰」, 『한국기독교와 역사』 52, 2020, 89~131쪽.

이만열, 『韓國基督敎文化運動史』, 大韓基督敎出版社, 1987.

_____, 옥성득 편역, 『언더우드 자료집 I-IV』, 연세대학교출판부, 2006.

이상현, 「언더우드의 이중어사전 간행과 한국어의 재편과정」, 『동방학지』 151, 2010, 223~278쪽.

이 숙, 「언더우드를 가르치고 국문연구소 위원으로 활동한 송순용」, 『기독교사상』 722, 2019, 145~158쪽.

이장식, 『大韓基督敎書會 百年史』. 대한기독교서회, 1984.

이혜원, 「조선성교서회 초기 간행물에 대한 재 고찰」, 『한국교회사학회지』 55, 2020, 499~535쪽.

한국기독교역사학회 편, 『한국 기독교의 역사 1 개정판』. 기독교문사, 2011.

Annual Report of the Central Chinese Religious Tract Society, 1894.

Annual Report of the Korean Religious Tract Society, 1899.

Helen S.C, Nevius, *Descriptive Catalogue of Books and Tracts by the Rev. John Livingston Nevius, D.D. and Helen S. Coan Nevius.* Shanghai : American Presbyterian Mission Press, 1907.

Narrative Report of the Work of the Presbyterian Mission, North, in Korea from Nov.1893 to Dec.1894, 1894

Translation as Mission : H.G. Underwood's Translation of Chinese Christian Literature (1886-1896)

Lee, Goeun*

This study shed light on the context in which Horace G. Underwood (1859-1916), an American Protestant missionary who left important achievements in evangelism, education, medical, and publishing in Korea in the early days of Korean Protestantism. The scope of this study spans from 1886 up to the mid 1890s, when he introduced a number of Chinese Christian literature to Korea and have them translated into Korean. I provide a table of Chinese Christian texts and their Korean translations known to have been translated by H.G. Underwood to discuss some features of his selection books, how he obtained those book, what motivated him to produce those translations. In addition, attention is paid to the translators around Underwood and the readers of those books. Finally, I suggest several research conundrum, such as the unclear year and place of publication of the translations, the lack of consistency in English and Chinese titles, and the possibility of duplication of translation works by other missionaries.

Key words : H.G.Underwood, translation as mission, Chinese Christian literature, evangelistic tracts, catechism, translation assistant

논문투고일 : 2021년 7월 16일 ‖ 심사완료일 : 2021년 8월 16일 ‖ 게재확정일 : 2021년 8월 19일

* 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 Researcher